

독서수업
지도안
학생용

초등학교 5학년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이상권 글 | 박철민 그림 | 웅진주니어 | 174쪽

독서수업 주안점

-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 기르기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 기르기
-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작품을 찾아 읽는 태도 기르기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 기르기

표지 탐색하기

이름 :

💡 <그 녀석 왕집게>를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 제목 ‘그 녀석 왕집게’를 보고, 떠올린 생각은 무엇인가요?

⇒

2)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 책 뒷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애들아, 이 책에는 땅벌, 뽕나무하늘소, 불개미, 쥐며느리가
나온단다. 우리의 눈에는 작고 하찮게 보이는
그런 생명체들도, 우리 인간들만큼이나 열심히 살지.
나는 그 작은 생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그들의 삶을 너희들에게
보여 주고 싶었어.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 사람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

① 이 책에는 어떤 동물들이 나오나요? 또 그들이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 했나요?

⇒

② 이 책을 통해 작가가 보여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어휘력 쑥쑥 키우기(1)

이름 :

💡 다음은 <그 녀석 왕집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 찬 바람이 울긋불긋한 단풍잎을 타작하자 눈이 내렸다.
- 여름 방학이 되었다. 해는 아이들 얼굴을 새까맣게 지저 놓았다.
 - 지렁이와 싸운 후 곤장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자 도란거리는 사람 말소리가 들렸다.
 - 엉덩장군은 여왕개미를 호위하면서 집을 빠져나갔다.
 - “아이고, 제발 그렇게만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별로 미덥지 않네요.”
- (나) · “땅벌 이놈들, 내가 ㉠ 물러설 줄 알았냐! 그때는 작전상 행복을 한 것이다. 히히히!”
- “너, 여기서 뭐 해? 아이고, 아주 ㉡ 에 잘 논다, 잘 놀아. 아예 쥐며느리를 잡아서 훈련시킨 다음, 서커스라도 시키지 그래?”

1) (가)의 밑줄 친 낱말에 알맞은 뜻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믿음성이 있다.
- ② 따라다니며 곁에서 보호하고 지키다.
- ③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낱알을 거두다.
- ④ 여럿이 나직한 목소리로 정답게 서로 이야기하다.
- ⑤ 불에 달군 물건을 다른 물체에 대어 약간 태우거나 눈게 하다.

2) (나)의 ㉠~㉡에 들어갈 말의 뜻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 일이나 사람이 만만하여 다루기 쉬운 모양.
- ㉡ 아버지와 딸 사이.

어휘력 쑥쑥 키우기(2)

이름 :

💡 다음은 <그 녀석 왕집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우석이 형의 ()에는 마른 쭉대가 가득 들어 있었다.
- “내가 먼저 무덤 주변을 ()로 때려 보고 했어야 하는데…….”
- “내가 졌으니까, 제발 물지 마! 제발!” / 하면서 돌에 맞은 ()처럼 도망쳤다.
- “천만 원이나 올려 달라고 하더니, 저놈의 쥐며느리가 주인 아저씨하고 ()인가 봐요!”
- 작년 가을에 집을 내놓았으나 이제야 다른 ()가 계약을 하였다.
- (나) ·“자식,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도 모르냐? 내기할래?”
- “이봐, 으악아줌마, 드디어 후련하겠어. 이제 곧 쥐며느리들의 ㉡씨가 마를 테니까.”

1) (가)의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바지계 : 발채를 엮은 지계.
- ② 간짓대 : 대나무로 된 긴 장대.
- ③ 한통속 : 서로 마음이 통하여 같이 모인 동아리.
- ④ 세입자 : 세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
- ⑤ 발바리 : 몸이 작고 다리가 짧은 애완견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나)의 ㉠~㉡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은 것이다. 알맞게 짝을 지어 쓰시오.

- ㉠ 어떤 종류의 것이 모조리 없어지다.
- ㉡ 몸집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재주가 뛰어나고 야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공포의 땅벌

이름: _____

💡 다음 <그 녀석 왕집게>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할매, 그래도 미워요.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안다, 아가. 할매가 일부러 그랬어. 글제만 아가, 걱정 마라. 땅벌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여. 당분간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다시 살 것이여. 저기 산기슭 어디에다 굴을 파고 새로 시작할 것이다. 땅벌은 절대 안 죽어. 사람보다 더 강한 것들이거든. 암, 두고 봐라.”

(나) “혹시 옛날 시우네 사랑방 모퉁이에서 살던 땅벌들이……. 그때 땅꾼들한테 비싸게 팔아 먹었는데.”

그 말에 나는 쓴웃음을 뿌렸다. 아니다. 벌이 무덤에서 많이 사는 이유는 그곳이 살기 좋기 때문이다. 햇살이 잘 들고, 사람들이 자주 오지 않으니까.

만약 땅벌에게 영혼이 있다면 사랑방 감나무 밑에서 자신들을 쫓아낸 할머니를 이해했으리라 하고 나는 확신하였다. 땅벌들도 알고 있었을 거다. 사람 사는 집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길들여진 꿀벌들만이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다. 땅벌은 넓은 야생의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할머니의 생각이었다.

1) 아래는 (가)~(나)에 나타난 ‘할머니’의 ‘땅벌’에 대한 생각이다.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 : 땅벌들은 사람보다 더 강한 것들이라서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며, 당분간은 _____

(나) : 길들여진 꿀벌들만이 사람과 같이 살 수
있고, 땅벌은 _____

2) (나)에서 ‘벌’이 무덤에서 많이 사는 이유를 찾아 쓰시오.

⇒

그 녀석 왕집게(1)

이름 :

💡 다음 <그 녀석 왕집게>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왔다. 뒷산에서 소들이 울어 대고, 논에서는 개구리가 울음주머니를 부풀리기 시작했다. 시우의 입도 근질근질해졌다. 묘한 일이었다. 노을이란 모든 생명체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았다.

뽕나무에서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시우는 숨을 죽였다. 삐익, 삐익. 소 울음소리만큼 크지는 않지만,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또렷하게 들렸다. 시우는 까치발을 하고 올려다보았다. 보인다. 시우 손가락만 한 하늘소였다. 하늘소는 매듭이 많은 긴 빨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삐익, 삐익!” 울었다.

‘왜 저 녀석들은 노을이 지면 울까? 저 녀석들도 어둠이 오는 걸 알까?’

(나) “아가, 거기서 뭐 하냐?” / “할아버지, 이제 오디도 못 먹겠네요?”

시우의 입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실은 뽕집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다. 왜 뽕집게는 노을이 지면 소리를 내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그냥 알 것 같았다. 뽕집게도 노을을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처럼. 시우도 노을만 보면 입이 근질근질해진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뽕집게들도 그럴 것이다.

1) (가)~(나)에 나타난 ‘노을’에 대한 ‘나’(시우)의 생각이다.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 : 노을이란 모든 생명체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았고, _____



(나) : 노을을 보면 사람인 ‘나’도 입이 근질근질해진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뽕집게도 노을을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2) (가)에서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쓰시오.

⇒

그 녀석 왕집게(2)

이름 :

💡 다음 <그 녀석 왕집게>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우는 뽕집게에게 ‘왕집게’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말벌도 왕집게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딱정벌레는 제법 끈질기게 싸웠으나 역시 무시무시한 뽕집게의 집게를 당해 내지 못했다. 딱정벌레는 뽕집게의 집게에 물리자, / “내가 졌으니까, 제발 물지 마! 제발!” / 하면서 돌에 맞은 발바리처럼 도망쳤다. 아이들은 그런 딱정벌레에게 돌을 던졌다. 결국 딱정벌레는 아이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다.

아이들은 왕집게를 가진 시우를 부러워했다. / 뽕집게는 시우네 뽕나무에서만 살았다. 왜 그러는지는 모른다. 마을에는 서너 살 된 뽕나무가 많았다. 그런 뽕나무에는 뽕집게가 살지 않았다. 오직 고목인 시우네 뽕나무에서만 살았다.

(나) 시우는 낮으로 뽕나무 고목을 짚어 냈다. 뭔가 보였다. 바로 뽕집게 새끼들이었다. 번데기에서 뽕집게로 변하고 있었다. 색깔은 투명하지만 생김새는 영락없는 뽕집게였다. / ‘아하, 뽕집게가 뽕나무 속에다 새끼를 까는구나.’ / 그제야 시우는 그동안 품어 왔던 궁금증이 풀리는 듯했다. 뽕집게는 뽕나무 고목이 있어야 새끼를 치는 모양이다. 시우네 뽕나무에 뽕집게가 많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 1) (가)에서 ‘시우’는 ‘왕집게’에게 싸움을 시켰고, ‘아이들’은 돌을 던져 ‘딱정벌레’를 죽였다. 이러한 ‘시우’와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시오.

- 2) (나)에서 ‘시우’가 품어 왔던 궁금증은 무엇이고, 어떻게 풀렸는지 쓰시오.

⇒

불개미 엉덩장군

이름 :

💡 다음 <그 녀석 왕집게>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니, 왜 그러느냐?”

“장군님, 이번에는 인간들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 “인간들이라고?”

불개미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인간이다. 인간을 당해 낼 수는 없다. 빗줄기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들이다. 엉덩장군은 생각에 잠겼다. 한참 뒤, 엉덩장군이 물었다.

“그래, 어떻게 방해하느냐?” / “길에다 나뭇잎을 깔아 놓기도 하고, 흙을 뿌려 놓기도 하고, 오줌을 싸 놓기도 하고, 땅을 파 놓기도 하고…….”

(나) 사흘이 지났다. 얼굴이 누렇게 뜬 시우가 칠팔월 근처를 두리번거렸다. 시우는 심하게 앓았다. 개미 독이 온몸이 퍼져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한다. 불개미가 나오는 꿈도 꾸었다. 불에 타 죽는 불개미들이 살려 달라고 아우성치는 꿈이었다. 그제야 시우는 불개미들에게 너무했다는 생각을 하였다. 크게 앓은 뒤 시우의 생각은 많이 변했다.

시우는 엉덩장군을 보고 싶었다. 엉덩장군은 다른 개미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했다. 엉덩장군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불개미들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흔적도 없었다.

“엉덩장군아, 미안해.”

1) (나)의 꿈 내용으로 보아, ‘시우’가 ‘불개미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쓰시오.

⇨

2) 윗글에서 ‘불개미’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인간이고, ‘시우’는 ‘불개미들’에게 너무했다는 생각을 했다. ‘불개미’의 입장에서 ‘시우’에게 할 말을 써 보시오.

⇨

작은 탱크 쥐며느리(1)

이름 :

💡 다음 <그 녀석 왕집게>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빠, 쥐며느리는 한번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

“대부분 그렇지. 가끔씩 허리를 활처럼 휘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단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 이놈들을 이렇게 넘어지게 할 수만 있다면…….”

“아빠, 쥐며느리는 저 짧은 다리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들네. 헤엄도 못 치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나라면 다리를 길게 할 텐데.” /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쥐며느리들은 저 짧은 다리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거야.”

“왜?” / “자, 봐라. 쥐며느리를 잡아먹는 딱정벌레 같은 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니?” / “도망쳐야지.” / “날개도 없고, 느릿느릿한데?”

“그러니까 다리가 길면 좋지. 빨리 도망칠 수 있으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딱정벌레가 워낙 빨라서 잡아먹힐 게 뻔해. 그래서 쥐며느리가 머리를 쓴 거야. 빨리 도망치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몸을 둥그렇게 말면서 작은 다리까지 안쪽으로 접어 넣는 거지. 쥐며느리들은 가장 약한 다리와 배를 그렇게 감추는 거야. 그러면 딱정벌레도 쥐며느리의 살 속에다 날카로운 이빨을 박지 못하거든. 그래서 쥐며느리는 딱정벌레에게 거의 잡아먹히지 않아.”

1) 윗글에 나타난 ‘쥐며느리’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① 짧은 다리의 단점 : 가끔씩 허리를 활처럼 휘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드물고, 헤엄도 못 치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함

② 짧은 다리의 장점 : 적이 나타나면 빨리 도망치는 것을 포기하고, _____

2) 윗글에서 ‘나’(단후)라면 ‘쥐며느리’를 어떻게 할지 쓰고, ‘쥐며느리’의 적을 쓰시오.

⇒

작은 탱크 쥐며느리(2)

이름 :

💡 다음 <그 녀석 왕집게>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는 그때는 할머니 말씀에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 잊고 산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만 해도 그래. 아무리 셋방이라고 해도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살아야 해. 비록 꾸미지는 못해도 말이야. 셋방이면 어때? 내 집처럼 살면 되지.

이 집에서 살다 간 사람들도 다 우리처럼 살았어. 이 집에도 정을 주지 않고, 그저 잠시 거쳐 간다는 생각으로 도배도 한 번 하지 않고 말이야. 자그마치 십 년간이나. 벽이 갈라져도 내 집이 아니니까 하는 생각으로 지나치고. 그러니 벌레들이 안 나올 수가 없지.

(나) “단후야, 알았지? 그놈들도 살려고 우리 방으로 들어온 거야. 그놈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곳은 더럽고, 청소도 하지 않고, 벽이란 벽은 다 갈라져 있으니 우리들이 살 만한 곳이군 하고. 하지만 우리가 집을 깨끗하게 하면 그놈들은 스스로 물러나. 자기들이 살 만한 곳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 그놈들도 다 생각을 한단니까. 사람하고 똑같아. 아빠도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이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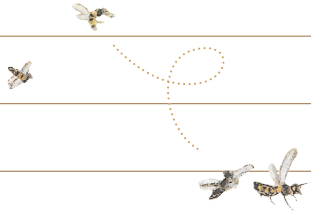
나는 아빠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쥐며느리도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아빠의 말이 잠들 때까지 귀에서 꿈지락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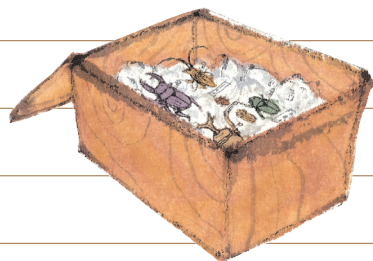
1) (가)~(나)에 나타난 ‘아빠’의 말을 정리한 것이다. 빈곳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 :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애정을 가지고 살아야 해. 벌레가 나온 것은 이 집에서 살다 간 사람들도 _____ _____ _____	(나) : 쥐며느리도 살려고 우리 방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놈들은 _____ _____ _____ _____
--	--

2) (나)에서 ‘나’(단후)의 귀에서 꿈지락거렸던 ‘아빠’의 말을 요약하여 쓰시오.

⇒





정답과 해설

3쪽	1) (예시답안)그 녀석이라고 말한 ‘왕집게’가 어떤 동물인지 궁금했다. 2) 칠푼굴로 만든 모자를 쓴 남자아이가 품에 풀을 한 아름 안고 벌집으로 기어가며 오른팔을 뺐고 있다. 이 모습을 뒤쪽 나무에 있는 남자아이가 팔짱을 끼고 보고 있다. 3) ① 땅벌, 뽕나무하늘소, 불개미, 쥐며느리 / 작고 하찮게 보이는 그런 생명체들 3) ② 그 작은 생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는지, 그들의 삶
4쪽	1) ③, ⑤, ④, ②, ① 2) ㉠ : 호락호락, ㉡ : 부녀지간
5쪽	1) ①, ②, ⑤, ③, ④ 2) ㉠ : ㉡, ㉢ : ㉣
6쪽	1) (가) :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다시 살 것이고, 산기슭에다 굴을 파고 새로 시작할 것임 1) (나) : 사람 사는 집에서 살 수 없고 넓은 야생의 세계에서 살아야 함 2) 무덤이 햇살이 잘 들고, 사람들이 자주 오지 않아서 살기 좋기 때문에
7쪽	1) 왜 뽕집게들은 노을이 지면 우는지, 뽕집게들도 어둠이 오는 것을 아는지 궁금했음 2) 뒷산에서 소들이 울어 대고, 논에서는 개구리가 울음주머니를 부풀리기 시작했고, 시우의 입도 근질근질해졌다.
8쪽	1) (예시답안) 곤충끼리 싸우게 하여 다치게 하거나 돌을 던져 곤충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인간의 눈에는 작고 하찮게 보이는 뽕나무하늘소인 왕집게와 딱정벌레 같은 곤충들도 생명은 소중하다. 그들도 인간들만큼이나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2) • 궁금증 : 시우네 뽕나무 고목에서만 뽕집게가 살았던 것 • 궁금증 해소 : 뽕집게는 뽕나무 고목이 있어야 새끼를 친다.
9쪽	1) 불개미 집에 불을 붙여 불개미들이 불에 타 죽게 했다. 2) (예시답안) 시우야! 우리들에게 가장 무섭고 당해 낼 수 없는 것은 너와 같은 인간이야. 네가 우리의 길을 방해하고 괴롭히니까 우리들이 네 옷 속으로 들어가서 물어뜯은 거야. 이제 생각이 변했다고 하니 다행이고, 우리들을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어.
10쪽	1) 그 대신 몸을 둥그렇게 말면서 작은 다리까지 안쪽으로 접어 넣어 가장 약한 다리와 배를 감춰서 거의 잡아먹히지 않음 2) 쥐며느리의 다리를 길게 하고 싶음 / 딱정벌레
11쪽	1) (가) : 정을 주지 않고, 도배 한 번 하지 않고 잠시 거쳐 간다는 생각으로 살아서 벽이 갈라졌기 때문임 (나) : 이곳은 더럽고, 청소도 하지 않고, 벽이란 벽은 다 갈라져 있으니 우리들이 살 만한 곳이군 하고 생각한 것임 2) 쥐며느리도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을 한다.

웅진주니어

값 7,500원



9 788901 046099



ISBN 978-89-01-04609-9

ISBN 978-89-01-03863-6 (세트)



KCC 마크는 이 제품이
공동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